

가축질병치료비의 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남 치 주

우리나라 축산업은 유축농업에서 전업축산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으나 수입개방화 시대를 맞게 되어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축산의 성공을 생산비를 최소화하고, 축산식품의 품질에서는 외국축산식품을 능가할 수 있을 때에만 건전하게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산관계인 모두가 서로 책임감을 갖고 외국축산 식품의 수입에 이길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축산경영에서 생산비는 사료비, 인건비, 방역 진료비등 여러가지가 포함된다. 필자는 가축의 질병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임으로서 보다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몇가지 점에 대해 기술 하는 바이다.

1. 우리나라 가축 질병 발생 현황

우리나라 가축질병 진료 현황을 보면 소와 돼지

는 소화기병과 호흡기 병이 많이 발생되었고, 닭은 호흡기병 발생율이 제일 높았고 그다음으로 소화기 병이 많았다.

이를 살펴보면 진단 치료비와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2. 가축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질병예방

우리나라 가축의 진료상황을 보면 사양관리 미숙과 축사환경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질병이 제일 문제되고 있다. 그러므로 질병의 진단 치료에 앞서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사양관리와 감염병에 대한 예방등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축 질병과 폐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극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축산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축 건강관리 프로그램

표1. 가축질병 진료현황(마리)

	계	소화기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비뇨기	외상	기타
소	378,481	152,261	96,481	17,018	71,513	7,513	12,641	21,054
돼지	195,179	82,795	74,278	8,715	11,316	1,833	4,735	11,507
닭	419,755	69,605	311,557	3,936	220	367	2,152	31,918

(1989년도 농림수산 통계연보)



계약진료체제는 지역단위로 수의사와 축산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축산업체에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 사양관리, 진료등을 실시하고 가축질병등의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가축의 생리 번식 영양등을 지도 관리하며 강습회 세미나등을 통하여 축산 경영가의 기술 향상을 기하는 것



표2. 폐사 검안 현황(마리)

	검안수	전염병	일반병	기타
소	4,409	70	4,339	
돼지	11,451	6,205	5,246	

(1989년도 농림수산 통계 연보)

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가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란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축산업체에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역, 위생, 사양관리등을 지도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번식효율등을 높혀 축산업의 향상에 기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이다.

3. 계약진료단위 확립

현재 우리나라의 가축방역및 진료업무를 살펴보면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및 그 지소에서 위생관리, 질병의 방역및 예방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의 진단치료는 동물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수의 업무는 주로 위생방역이나 질병의 진단 치료에 치중되었으며, 생리 번식 영양 등 사양관리면에 지도가 불충분하였다고 생각된다.

국가기관으로 각 시군별 동물 진료소가 설립되어 방역 진료 뿐아니라 건강관리를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기대하면서 우선 지역단위로 계약진료체제를 만들어 앞에서 설명

한 가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계약진료체제는 지역단위로 수의사와 축산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축산업체에 순회 지도를 실시하여 사양관리, 진료등을 실시하고 가축질병등의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가축의 생리 번식 영양등을 지도 관리하며 강습회 세미나등을 통하여 축산 경영가의 기술 향상을 기하는 것이다.

4. 동물의약품의 유통단일화

우리나라 동물약품등 취급규칙에 의하면 동물의약품의 매약은 약사 또는 관리약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수의사의 진단에 의한 처방조제는 당연하다.

현재 500여개의 동물약품판매 업체가 있는데 축산업자들은 이들 약품판매업체를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수의사가 아닌 약사들은 가축의 생리, 질병발생기전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약품의 남용을 일으켜서 공중위생상 문제도 있거니와 변이성 질병을 유발하여 치료가 어렵게 되어 오히려 가축약품비 지출만 증가하게 되어 축산경영에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동물의약품은 수의사들이 진단한 다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축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상과 같이 수입개방화에 따른 우리나라 축산업의 견고한 발전을 위한 대책가운데 수의학적 입장에서 몇가지 점을 제시하는 바이다.